지난해 인구이동 43년 만에 최대폭 감소

615만2천명 이동…주택거래 급감 영향
'주택' 이동자 수 전년 대비 60만명 줄어

지난해 국내에서 이동한 인구수가 43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이동 사유로는 집 문제가 10명 중 3.4명으로 가장 많았지만, 1년 전에 비해 60만명가량 최대로 감소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주택 거래량이 얼어붙은 영향으로 풀이된다.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2022년 국내인구이동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인구 이동자 수는 615만2000명으로 1년 전보다 14.7%(-106만1000명) 감소했다.

감소 폭은 1979년(-108만6000명) 이후 가장 컸다. 인구이동자 수는 꾸준히 감소 추세였는데, 1974년 530만명 이후 48년 만에 가장 적었다.

인구 100명당 이동자 수를 뜻하는 인구이동률은 1년 전보다 2.1%포인트(p) 감소한 12.0%였다. 1972년 이후 5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시도 내 이동은 전체 이동자 중 64.7%, 시도 간 이동은 35.3%를 차지했다.

노형준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인구 고령화와 교통·통신의 발달 등으로 장기적으로 국내이동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지난해에는 주택과 관련된 사유로 인구이동수가 크게 줄면서 전체적으로 인구이동 감소 폭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인구이동 사유 중 주택 문제에 의한 이동자 수가 1년 전에 비해 가장 크게 감소했다. 지난해 '주택' 문제로 이동한 인구가 211만6000명으로 전체의 34.4%를 차지했다. 이동자 수는 전년 대비 59만8000명이 감소해 가장 크게 줄었다.

주택 관련 사유에는 내 집 마련을 위해 이사한 경우, 주택 규모를 변경해 이사한 경우, 재개발·재건축으로 이사한 경우, 전월세 계약기간이 끝나서 이사한 경우 등이 포함된다.

노 과장은 "지난해 1~11월 주택매매량 통계를 살펴보면 48만건 정도인데, 1년 전 같은 기간 96만1000건인 것에 비해 50% 이상 감소했다"며 "주택시장이 전년에 비해 덜 활발했고, 그로 인해 주택 관련 이동 수요가 줄면서 국내인구이동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다른 사유로는 가족(23.7%), 직업(23.4%)이 뒤를 이었다. 시도 내 이동 사유는 주택이 43.0%로 가장 많았지만, 시도 간 이동은 직업(35.6%)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연령별로 보면 20대(23.1%)와 30대(18.9%)에서 이동률이 두드러졌고, 60대 이상에서는 낮았다. 성별 이동률을 보면 남자가 12.4%로 여성 11.6%보다 0.7%p 높았다.

1년 전과 비교해 전 연령층에서 이동률이 감소했다. 이동자의 중위연령(나이순으로 나열했을 때 정중앙에 있는 사람)은 전년보다 0.6세 감소한 33.7세였다.

지난해 수도권의 경우 순유입은 3만7000명으로 1년 전에 비해 1만9000명이 감소했다. 수도권은 2017년부터 순유입으로 전환된 후 그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연령별로는 10~30대가 순유입됐는데, 이 가운데 20대가 가장 많았고 이외 연령에서는 순유출됐다. 젊은층이 학교나 직장 등으로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꾸준한 추세로 분석된다. 전입자가 전출자보다 많아 순유입 수가 가장 크게 나타난 시도는 경기(4만4000명) 지역이었다.

/뉴시스

여수광양항만공사 소방시설물 관리 강화

여수광양항만공사(YGPA)는 여수광양항 위험물 취급 부두 등의 소방시설에 대해 '소방안전관리대행 및 소방시설 점검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안전관리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

대상 시설은 석유화학부두를 포함해 중흥부두, 낙포부두, 해양산업클러스터 등에 설치된 소방시설이다.

YGPA는 소방시설물에 대한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 자체 점검 및 유지 관리와 함께 부두별 현장 안전관리자 대상으로 소방시설 설치현황과 소화활동 절차 등 현장교육 및 화재상황을 대비한 소방훈련을 시행할 계획이다.

광양제철 '청춘 취업컨설팅' 4기 내달 13일까지 모집

광양제철소가 오는 2월 13일까지 '청춘業! UP! 취업컨설팅' 4기 참여자 50여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에 앞장서기 위해 2021년부터 지역 내 취업준비중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취업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취업컨설팅은 참가자들이 멘토 선배들의 진솔한 이야기와 취업에 필요한 다양한 노하우를 들으며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직무세션과 △취업세션으로 나눠 진행된다.

직무세션에서 참가자들은 각자의 학교·전공 등을 반영한 1:1맞춤형 멘토가 배정돼 회사생활과 직무에 대한 설명과 필요 자격증, 유관활동에 대해 듣는 시간을 가진다.

아울러, 취업세션에서는 광양제철소 인사부서 실무담당자들이 직접 나서 자기소개서 코칭과 함께 GA(그룹 면접)·AP(분석발표 면접)·에세이면접 코칭이 진행된다.

특히, 이번 '청춘業! UP! 취업컨설팅'은 2023년 채용Trend에 대한 설명과 취업 전반에 관련된 생생한 팁을 전하는 시간이 예정돼 보다 효과적인 취업역량 향상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접수기간은 1월 25일부터 2월 13일까지이며 만39세 이하의 취업준비생, 고등학교 재학생, 대학교 재학·휴학·졸업생을 대상으로 총 50여 명을 모집할 예정이다. 신청 서류 양식은 광양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색조 화장품 매출 상승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 첫 날인 30일 오후 서울시내 백화점을 찾은 시민들이 색조 화장품을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1가구 2주택 양도세 제외…전남 솔라시도 주택분양 '청신호'

인구소멸지역 '영암·해남·태안' 기업도시에 특례적용

주택거래 시 보유가구 수에 따라 세금을 물리는 양도세 중과세 부과 제외 지역에 전남도가 조성 중인 기업도시 솔라시도가 포함돼 주택분양에 청신호가 켜졌다.

3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18일 지역균형발전 강화 차원에서 기업도시 개발구역에 대한 농어촌주택 양도세 감면 특례 적용이 포함된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해당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월 3일까지 입법예고 기간과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2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인구소멸지역'으로 지정한 해남·영암·태안 3곳에 조성 중인 기업도시에 한해 '1가구 2주택 양도세 중과세' 부과 대상 지역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 같은 조치에 따라 전남도가 보성그룹의 SPC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와 영암·해남 일원에 추진 중인 '솔라시도 기업도시' 주택분양이 크게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그동안 솔라시도는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화 진행 예정지역으로 분류돼 농어촌 지역에 소재함에도 불구하고 1가구 2주택 양도세 중과세 대상지역에 포함됐었다. 이 때문에 민간사업자가 수도권 지역 수요자를 대상으로 지난해 하반기 공급 예정이었던 구성지구 선도 주택단지 600가구 분양에 큰 어려움이 따랐다.

하지만 전남도와 민간사업자가 제도개선을 위해 민·관협력 노력을 기울인 결과 양도세 중과세 특례를 적용받게 됨으로써 주택분양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

솔라시도는 골프를 비롯한 관광레저 기업도시를 표방하기 때문에 실거주용 외에 게스트 하우스와 같은 성격으로 주택을 활용하려는 수요자가 적지 않다는 점에서 부동산업계는 솔라시도를 주목하고 있다.

/권형안 기자

지난해 4분기 전남 수출 9.9%↓…3년 만에 무역수지 적자

광주세관 수출 동향…전남 화공품·철강제품 감소세

지난해 4분기 광주지역 수출은 소폭 증가한 반면, 전남지역 수출은 10% 가까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지난해 전남지역 무역수지는 3년 만에 2억89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30일 광주본부세관의 '2022년 4분기 광주·전남지역 수출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광주지역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한 43억5400만달러, 전남지역 수출은 9.9% 감소한 108억1700만달러로 집계됐다.

광주지역의 주력산업인 가전제품 수출은 전분기 대비 10.6% 증가한 반면 반도체(14.3%), 타이어(11.7%), 주형(10.5%), 자동차(0.5%) 등은 감소했다.

전남은 크레인 수출이 전분기 대비 2.6% 증가했으나 철강제품(43.3%), 선박(19.2%), 화공품(18.0%), 석유제품(10.1%) 등은 줄줄이 감소했다.

2022년 한 해 광주지역 수출은 전년 대비 8.1% 증가한 179억4700만달러, 수입은 20.7% 증가한 97억1400만달러로 무역수지는 82억33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그러나 전남지역 무역수지는 지난 2019년 이후 3년 만에 적자를 기록했다.

2022년 전남지역 수출은 전년 대비 15.5% 증가한 494억3700만달러, 수입은 34.9% 증가한 497억2600만달러로, 무역수지는 2억89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2020년 40억5400만달러, 2021년 59억4400만달러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한 것과 비교해 큰 폭으로 떨어진 것이며 2019년 2억2100만달러 적자를 낸 이후 3년 만에 적자세로 돌아섰다.

전남지역 주력산업 중 크레인(165.5%), 석유제품(67.6%), 선박(6.0%) 등의 수출은 증가한 반면 철강제품(10.2%), 화공품(5.5%) 등이 감소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권형안 기자

가스요금 '추가 인상' 불가피 전망

이창양 "가격도 중요, 수급 안정성이 더 중요"

지난 한 해 38% 인상된 가스요금이 역대급 한파를 만나 이달 '난방비 폭탄'을 터트렸다.

정부는 민생 안정을 위해 추가 인상 시기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9조원에 달하는 한국가스공사 미수금과 국제 에너지 동향 등을 고려하면 2분기에 추가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비록 2분기에 동결하더라도 추후 인상은 계속될 전망이다. 겨울철 취약층을 위해 한시적으로 내놓고 있는 지금의 난방 대책 말고, 장기적이면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30일 에너지 및 물가 당국에 따르면 오는 2분기 가스요금 추가 인상에 무게가 실린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6일 기자들을 만나 2분기 가스요금 인상 가능성에 대해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 등으로 가스공사 적자 폭이 확대돼 인상 요인은 분명하다"면서도 인상 시기와 수준 등은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다만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수급 안정성을 거론한 만큼, 2~3월 한파로 인한 가스공사의 적자 규모가 커진다면 2분기 인상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MBN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에너지는 가격도 중요하지만 결국 수급 안정성이 더 중요하다. 에너지의 공급 지속 가능성을 위해 어느 정도는 미수금을 줄여 가면서 요금을 어느 정도 현실화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말한 바 있다.

정부는 이달 말 '가스요금 폭탄'이 곳곳에서 터지자 부랴부랴 겨울철 한시적으로 에너지바우처 지원을 늘리고 할인폭을 확대하겠다는 정책을 내놨다.

다만 가스요금 인상으로 인한 민생 부담이 단발성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란 게 문제다.

2분기에도 전분기에 이어 요금을 동결하더라도, 가스공사의 9조원 미수금은 남아있는 만큼 이를 정리할 때까지 인상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점에서다. 산업부는 오는 2026년을 목표로 이를 정리하겠다고 발표한 바있다.

게다가 국내 경제는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에 각종 공공요금 인상을 앞두고 있다. 여기에 가스요금까지 오르면 가계에 미치는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생산효율성 OECD 평균 미달

우리나라 생산효율성 59.9%…장기 저성장 우려

우리나라의 생산 효율성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에도 못 미치는 등 주요국 대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팬데믹 위기 이후 높아진 거시경제의 불확실성이 생산성 등 경제의 기초체력을 약화시켜 장기 저성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은행은 30일 'BOK 이슈노트'에 실린 '코로나19 이후 생산성 변화의 주요 특징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국가 패널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 결과 우리나라는 생산효율성이 주요국 평균 수준에 크게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은이 국가패널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9년 우리나라의 생산효율성은 미국 대비 59.9%로 OECD 회원국 평균치(73.2%) 보다 낮았다. 우리와 경제규모가 유사한 국가들(1인당 명목 GDP 3~5만 달러)의 평균치(70.8%)도 하회했다.

한은은 이와 관련 주요국간의 기술혁신 속도 격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기 때문에, 생산 효율성 개선을 위한 노력없이 연구개발(R&D) 투자 등을 통한 기술혁신 노력만으로는 추가적인 생산성 개선이나 선진국과의 생산성 격차를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어렵다는 점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한은 조사 결과 우리나라 생산성은 팬데믹 직후 빠르게 반등하다가 정체되는 전형적인 위기시 경기변동적 패턴을 보였다. 한은이 자체 집계한 결과 우리나라의 생산성은 팬데믹 이전인 2011~2019년 전기대비 연평균 2.3% 성장했으나 팬데믹 직후인 2020년 2.6%, 2021~2022년 0.7% 성장에 그쳤다.

팬데믹 충격 직후 일시적 반등 이후 둔화세가 심화되면서 생산성의 장기추세도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성 둔화세가 심화된 데에는 ▲불안정한 대외여건 ▲산업간 재배분효과 소멸 ▲불황의 청산효과부재 등이 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팬데믹이 남긴 상흔효과로 인한 장기실업 등 인적자본 잠식, 글로벌공급망 분절화 등으로 인한 생산비용 상승, 한계기업 구조조정 지연 등 향후 시장 비효율성 누증으로 생산성 하방압력이 증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뉴시스

'광주·전남지역 중소기업지원협의회' 개최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하 중기청)은 30일 정부, 지자체, 유관기관 등과 '광주·전남지역 중소기업지원협의회' 회의를 개최하고, 앞으로 지역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및 현장 중심의 정책피드백 채널 마련을 위한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광주·전남지역 중소기업 지원협의회'는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2022년 1월 28일)이 제정됨에 따라, 지자체·특별행정기관·중소기업 유관기관 등 29개 기관으로 구성되어 운영 중인 법정협의체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기관별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공유하고, 기관별 현안사항 및 협의회 운영계획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또한 납품대금 연동제 실시 및 지역 동행축제 개최 관련 주요사항을 설명하며 참여기관과 지자체의 협조를 구했다.

다음 협의회부터는 이노비즈협회를 시작으로 찾아가는 방식의 중소기업지원협의회를 개최해, 현장중심의 지원 및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권형안 기자